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협력 FUNDACIÓN CULTURAL ASIA-IBEROAMÉRICA

2024. 05. 23
14:00~17:00

정동1928 아트센터

4th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WHAT'S
NEXT FOR ARTS &
CULTURE EDUCATION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비매품/무료
93370
9 788967 485580
ISBN 978-89-6748-558-0

4th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4. 05. 23.

14:00~17:00

정동1928 아트센터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CONTENTS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소개 04

세부 일정 06

주요 인사 07

세부 프로그램 10

발제문 및 토론문 16

지난 포럼 소개 44

포럼소개

4th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연계하여 이슈를 담론화하고,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실행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포럼에서는 거시적 사회 변화 흐름과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살펴보고,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전략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는 제3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아젠다에 기반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역할과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4회 포럼의 주제는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입니다. 유아, 어린이, 청년, 중장년, 더욱 다양해진 노년층까지 우리 사회의 각종 돌봄이 필요한 영역을 점검해 보고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역할과 방향을 탐색해 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미래 정책방향과 꿈꿀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일정

14:00~14:10	개회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14:10~14:40	[기조발제]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14:40~15:00	[주제발제1] 미래 인적자원 함양을 위한 돌봄체계 완성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5:00~15:20	[주제발제2]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선진적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이두희 베테랑 소사이어티 대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15:20~15:50	[주제발제3]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교육 : 콜롬비아 메데진시 교육 시스템 사례	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총장
15:50~16:00	휴식	
16:00~17:00	[지정토론] (사례1) 미래세대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사회이슈 연계 융합 프로젝트 교육	박지원 프로젝트플래닛 대표
	(사례2) MZ들이 만드는 동네 청년 돌봄공동체 필요성	이학준 청년채움 대표
	[종합토론] 돌봄 이슈와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중요성과 정책 방향성	*좌장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사업본부장
	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 확장 및 다양한 현장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성장·지원 방향성	*통역 양삼일 아시아-아메로아메리카 문화재단 이사장
		*토론 발제/토론자 전원

주요 인사

개회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은실입니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개최하는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함께 자리해주신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의 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총장님과 디오니 곤잘레스 렝돈 국제협력처장님, 메데진시 까를로스 가스트로 사베드라 초등학교의 리다 쟈넷 루에다 프랑코 교무부장님, 콜롬비아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재단의 양삼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님과 주제발제를 진행해주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의진 교수님, 베테랑소사이어티의 이두희 대표님을 포함하여 패널 토론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해 2월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발족하여 사회문화·경제·복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와 정책 이슈를 연계해 문화계와 예술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관계자분들과 함께 미래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포럼은 현대사회 전반의 큰 틀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럼은 '생성형 AI'를 키워드로 미래교육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개막행사로 개최한 세 번째 포럼은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금번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돌봄사회와 돌봄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각종 돌봄이 필요한 영역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사업은 전국 340개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액티브시니어', '청년 소셜 모임' 등 새로운 세대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의 돌봄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을 통해 돌봄을 실행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간 돌봄 서비스 정책은 '복지'나 '치료'의 관점에서 대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종 돌봄의 경제적 측면, 즉,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돌봄 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와 의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돌봄 이슈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주로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습자의 창의성 증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과 마음 돌봄의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활발히 공유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민간, 학계와 교육현장의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프로그램

기조발제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생의 다양한 시기 중에서 어린시절에 투자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성취를 극대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어린 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비인지 기능 (책임감, 성실성, 사회성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의 비인지 기능을 함양하는 좋은 도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의사이자 경제학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 시절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는 진료실을 나와 현장에서 실험하고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분석했다.

주제발제 1

미래 인적자원 함양을 위한 돌봄체계 완성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 늘봄학교 국정과제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확장의 필요성

과거 우리 사회에서 아동 돌봄은 각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출산율/인구 감소로 인한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바른 돌봄 제도 및 정책을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 관련 정책 확장의 필요성을 나눈다.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회복, 성장을 위해 진료 현장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OVID-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발달 지연으로 고생하는 영유아, 자기조절이 어려운 초등학생, 자해에 몰두하는 청소년, 고립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해 서울시, 교육부, 경상북도 등에 전문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장 및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장,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주제발제 2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선진적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한국 시니어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은 최근 5-6년 동안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들의 신청년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 니즈는 기존의 복지적 접근만으로 충족될 수가 없게 되었다. 니즈가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시니어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매칭시키고 국가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두희

베테랑소사이어티 대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의 시니어는 평생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계의 연구자 겸 기업의 실천가로서 변혁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및 한국경영학회 시니어경영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과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APAIE)의 창설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경영학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한국소비문화학회장, 한국광고학회장 등으로 기여하였다.

주제발제 3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교육: 메데진시 교육 시스템 사례

2023년 1월,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시는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콜롬비아 특별 구역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지구로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기업, 대학, 학계 등 국제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과 접근성 향상, 교육과 예술/디지털 기술 중심의 도시발전계획 등 도시 혁신정책을 통한 지역의 변화 사례를 살펴본다.

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총장

Colombia Medellin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Pontificia Bolivar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2019년부터 ITM 시립대학교에서 교육전략 담당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사무국장직을 수행했다. 20년 이상 콜롬비아의 여러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 문학, 정치학을 가르쳤으며 교육 분야부터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하였다.

지정토론 1

미래세대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사회이슈 연계 융합 프로젝트 교육

AI 기술 혁신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뒤 성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교육을 설계하고 있는가? 문화예술융합 프로젝트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가치를 나눈다. 또한 프로젝트 플래닛이 기획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생생한 반응을 포함한 프로젝트 교육 현장의 사례를 공유한다.

박지원

프로젝트플래닛 대표

10년간 교육청, 방송국, 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예술융합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1년 미래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위해 교육브랜드 '프로젝트플래닛'을 설립하여 SDGs 주제를 담은 프로젝트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 지금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아우르며 융합하는 프로젝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정토론 2

MZ들이 만드는 동네 청년 돌봄공동체 필요성

'MZ' 세대는 2017년부터 정치권과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관심을 받았던 세대다. 하지만 MZ 세대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오해로 'MZ' 세대의 고립과 외로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지금까지 시도한 해결 방식과 '청년채움'이 제시하는 해결 방식을 비교하여 청년 돌봄 공동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학준

청년채움 대표

2020년 서울시 구로구에서 청년 비영리단체 활동을 시작하여 구로구청, 구로문화재단, 구로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서 청년들의 적응과 나은 삶을 위한 활동을 구로에서 이어오다 서남권 NPO 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후 구로구를 넘어 서울시로 활동 배경을 넓혀서 동네에서 외로움으로 고립되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틈만나면'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동네에서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토론

"돌봄 이슈와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중요성과 정책 방향성"

"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 확장 및 다양한 현장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패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두희
베테랑 소사이어티 대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총장

박지원
프로젝트플래닛 대표

이학준
청년채움 대표

좌장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사업본부장

문화예술교육 기반업무에 오래 몸을 담으며 예술교육실천가대회(ITAC) 리더십커미티와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협의체(UNITWIN)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영기획본부·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본부장을 거쳐 현재 미래사업본부에서 정책과 현장 사이를 긴밀하게 엮어가며 문화예술교육의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발제 및 토론문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기조발제

김현철 교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사건은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경남 창녕에서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4층 빌라의 지붕을 넘어 탈출한 10살 소녀나, 모텔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인천 모텔 영아 학대 사건도 모두 지난 1-2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 및 방임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의 환경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 속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회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에 작은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제게 묻는다면, "(임신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불우한 어린시절은 "불평등의 씨앗"인셈 입니다.

경제학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의 발전은 실증경제학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발전시켰죠. 이를 소위 경제학의 '신뢰성 혁명Credibility Revolution'이라 부릅니다. 신뢰성 혁명은 우선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우수한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나 '사회 실험Field Experiment'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라즈 체티(Raj Chetty)는 "경제학은 과학이다"라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가용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학은 더욱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어린 시절 환경이 주는 장기적 영향

먼저 편의상 "어린시절(영유아기)"을 출생이후 만 5세까지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므로 매우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어른이 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린시절이 불우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큽니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일류대학에 진학한 성공담을 가뭄에 콩나듯 듣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고등 교육의 기회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김현철 교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즉 영유아기와 성인기의 삶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기에 어려움을 격는 이유가 반드시 불우한 어린시절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물리적 환경, 친구, 학교 등 수많은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영유아기의 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 즉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은 다 비슷한데 영유아기 환경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비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예컨데, 지난 수십년 동안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중 보건, 공기질, 의료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 진보가 있었지요. 그런데 개선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아동기 건강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나중에 이루어진 지역을 비교하는, 소위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efferences)을 사용한 분석 기법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강한 환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중보건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 1950년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남미 국가들에서 대대적인 말라리아 박멸 사업을 했습니다. DDT라는 대단한 살충제가 새로 개발된 덕분이죠. 어린시절 말라리아 박멸 사업의 혜택을 본 지역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임금이 크게 올라, 미국은 약12%, 남미국가들은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Bleakley, 2010). 남미가 미국보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사업 전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를 환산하면, 어린시절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 임금이 무려 50%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상승 (0.2 표준편차)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Venkataramani, 2012). 말라리아는 뇌에 영향을 주어 인지 및 운동 기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증 질환입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와 임금도 영향을 줍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주유소에서 '무연' 휘발유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휴발유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납을 첨가 했었습니다. "유연" 휘발유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납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스웨덴은 1970년대에 점차 유연휘발유를 퇴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년이 늦은 1993년이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의 한 연구는 유연휘발유 퇴출로 공기 중 납의 농도가 줄고, 이것이 학업 성취와 임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Grönqvist, Nilsson, Robling, 2020).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소득이 늘면 교육과 건강에 더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 가나의 코코아 재배 지역의 자녀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삽니다 (Adhvaryu, Fenske, Nyshadham, 2019). 노르웨이가 생산하는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오르면, 노르웨이 어린이들의 인지능력과 학업 성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혜택은 저소득 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Løken, Mogstad, and Wiswall, 2012).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지능(IQ 점수)이 5%정도 낮고, 직장을 가질 확률도 50%나 감소합니다. 취업을 해도 임금이 평균 24%정도 낮습니다 (Currie and Widom, 2010). 그렇지만 유년기의 학대가 성인기 불우한 삶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불운한 아이들은 학대 이외에도 성장과정에서 수많은 불리한 환경 (가난, 폭력, 나쁜 친구)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성"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환경을 개선한 영유아 조기교육의 효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헤크만 (James Heckman) 교수입니다. 헤크만 교수는 다양한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0년, 56세의 나이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구직자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주로 분석하던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연구 분야를 바꾸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영유아 및 아동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 20년의 성과는 조만간 헤크만 교수가 두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964년 존슨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인 "빈곤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입니다.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유아교육 (3-5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따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유아기에 저소득층 (대부분 만 3-4세의 저소득층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보건/보육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가정방문도 자주 합니다. 헤드스타트는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확률을 낮추었습니다 (Garces, Currie, and Thomas, 2002). 또한 비만 및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을 크게 줄였습니다 (Carneiro and Ginja, 2014).

1960년대 미시간 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 (Perry Preschool Program)과 이와 유사한 North Carolina 주의 ABC/CARE 프로그램(The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ABC) and the Carolina Approach to Responsive Education (CARE))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작위 통제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즉 지원한 사람들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후, 이들을 40년 이상 추적 조사했습니다.

페리 스쿨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수혜자는 학업성취, 취업여부, 소득, 결혼 여부, 건강, 범죄 모든 영역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Heckman et al., 2010; Conti et al., 2013).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IQ와 같은 인지 능력보다는 자존감, 참을성, 정서적 안정과 같은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skill)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Heckman et al., 2013).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김현철 교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ABC/CARE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표1)
초등학교 1학년 즈음에 실시한 PIAT (Peabody Individual Achievement Test)에서 여학생은 점수가 95.6점에서 4.9점 상승했고, 남학생은 93.5점에서 7.7점 상승했습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할 확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30세의 소득은 특히 남자에게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의 평균 소득은 2014년 기준 $29,340 (약 3000만원)인데 반하여 처치군의 평균 소득은 이보다 $19,809 많았습니다. 임금이 무려 68% (=19,809/29,340)나 증가한 것입니다 (García et al, 2020). 건강도 크게 좋아져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표1. ABC/CARE 프로그램의 효과

	여성		남성	
	대조군 평균	참여자 평균 효과	대조군 평균	참여자 평균 효과
PIAT 점수	95.63	+4.92	93.46	+7.7
고등학교 졸업률	0.51	+0.25	0.16	+0.07
대학교 졸업률	0.08	+0.13	0.12	+0.17
30세 기준 소득 (달러)	23,443.42	+2,547.50	29,340.31	+19,809.74

자료: Garcia et al.(2020)

비인지 기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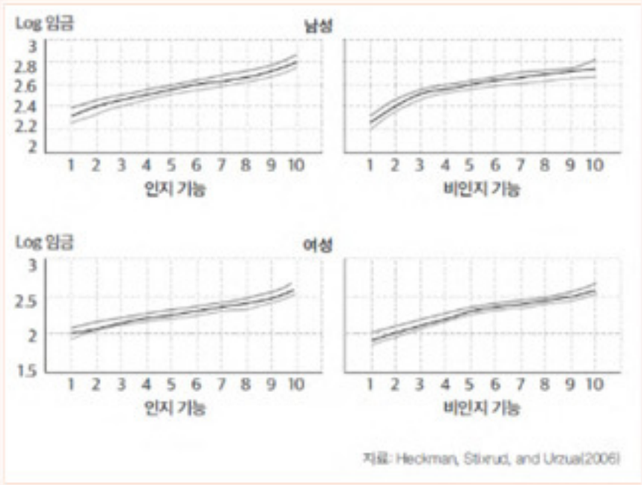
영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성적 개선효과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유일하게 성적 증가가 있었던 것은 ABC/CARE프로그램인데, 이마저도 단기에만 나타는 비교적 작은 효과 입니다. 그러면 임금과 건강에 미치는 상당한 효과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한 헤크만 교수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eckman, Stixrud, and Urzua, 2006). 성공적인 삶을 몇개의 변수로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임금 수준, 교육 연한, 건강, 안정적 가정생활 등을 그 척도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갖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학원과 과외 공부와 같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 (Cognitive skill)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 결과는 인지 능력과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자존감, 자기효능감, 참을성(끈기),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skill)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1은 인지 능력 및 비인지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례로, 첫번째는 남자, 두번째는 여자의 경우 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X축은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1분위는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고, 10분위는 성적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Y축은 비인지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위 (최상위) 부터 10분위 (최하위)까지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Z축은 인지 능력 및 비인지 능력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여줍니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이 모두 최하위 (10분위)인 사람들의 임금에 비해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모두 최상위 (1분위)인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따른 차이가 남성보다 더욱 큽니다.

그림1. 인지기능과 비인지 기능에 따른 임금 수준



자료: Heckman, Stixrud, and Urzua(2006)

주목할만한 부분은 인지 능력 못지 않게 비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끈기 있는 학생은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도 증가하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회사생활을 더 잘하지요. 그리고 인지 및 비인지 기능은 상보적입니다. 이를 모두 갖춘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지요. 이러한 패턴은 교육, 건강 등 우리 삶의 또다른 중요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부분 비인지 능력의 증가에서 왔습니다. 모든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비인지 능력 개선이 장기효과의 비결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영유아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때로는 없애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해내려면 성적 향상도 필요하지만, 자존감 및 참을성을 높여주는 등의 비인지 능력 개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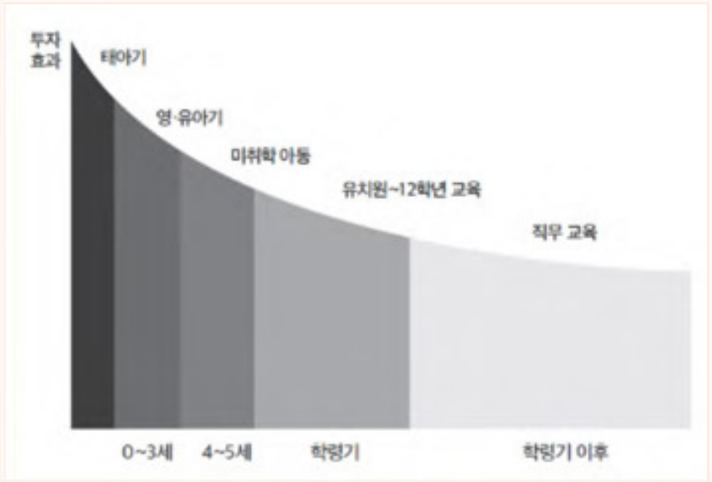
김현철 교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어린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는 학원과 과외 수업 등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하려면 성적 향상보다는 자존감과 참을성 등 비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이야 말로 바로 비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까?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직업교육까지 평생 인적자본을 연구한 헤크만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삶의 주기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유명한 『헤크만 곡선 (Heckman Curve)』입니다 (그림2). 헤크만 곡선은 임신기 및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직업 교육과 같은 성인기 투자에 비해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림2. 헤크만 곡선 (Heckman Curve)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적은 편으로, 우리 사회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Adhvaryu, Achyuta, James Fenske, and Anant Nyshadham.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4 (2019): 1516-1549.

Bleakley, Hoyt. "Malaria eradication in the America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hood exposure."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2 (2010): 1-45.

Carneiro, Pedro, and Rita Ginja. "Long-term impacts of compensatory preschool on health and behavior: Evidence from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4 (2014): 135-73.

Currie, Janet, and Cathy Spatz Widom.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2010): 111-120.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García, Jorge Luis, et al. "Quantifying the life-cycle benefits of an influential early-childhood progra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7 (2020): 2502-2541.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Grönqvist, Hans, J. Peter Nilsson, and Per-Olof Robling. "Understanding How Low Levels of Early Lead Exposure Affect Children's Life Traject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9 (2020): 3376-3433.

Heckman, James, Rodrigo Pinto, and Peter Savelyev.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program boosted adult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013): 2052-86.

Heckman, James J., Jora Stixrud, and Sergio Urzua.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2006): 411-482.

Heckman, James, et al. "Analyzing social experiments as implemented: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from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Quantitative economics 1.1 (2010): 1-46.

Løken, Katrine V., Magne Mogstad, and Matthew Wiswall.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012): 1-35.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미래 인적자원 함양을 위한 돌봄체계 완성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늘봄학교 국정과제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확장의 필요성

주제발제1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정신건강의학과

1. 배경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돌봄은 각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며, '자식은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으로 입법과 사회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교육 영역'은 돌봄보다는 일찍 공적 체계로 들어와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체계화 된 지 오래되었다. 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성장이 한국의 우수한 교육체계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감소가 사회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사적인 영역이었던 자녀 양육을 공보육 시스템으로 옮겨 개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무상보육이란 정책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저소득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복지 차원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일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을 국가 주도의 공보육 체계를 통해 보편적 지원을 한 것은 이 때부터 이다.

이후 정부는 영유아 보육비, 가정보육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정책에 국비 지원을 많이 늘렸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60% 이상 차지하면서 공공 보육 시스템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기 양육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일찍 하교하여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돌봄지원을 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보육, 늘봄학교 제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그 제도의 수혜자인 영유아, 아동의 입장에서 이들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몹시 부족하다. 필자는 국가 주도의 공적인 돌봄체계가 아이들의 올바른 뇌 발달, 심리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무엇인지, 그리고 심각한 경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높은 자살율로 신음하고,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종합병원을 가득 채우고, 고립·은둔 청년들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의 돌봄 지원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올바른 '돌봄 제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논의

1)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이 개인의 미래 역량,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

인간은 태어난 직후 주변의 자극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신경 연결망을 구축해나가는 변화를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사춘기까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세돌 이전에는 synaptogenesis(신경연접부 생성)과 neural pruning(신경연접부 가지치기)가 몹시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시기에 애착 대상(부모)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받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미래 인적자원 함양을 위한 돌봄체계 완성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늘봄학교 국정과제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확장의 필요성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공감 능력, 정서 조절력,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조절력 등을 담당하는 변연계(limbic systm)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이 시기에 애착 대상과의 잦은 이별, 정서 교류의 부족(특히 디지털 기기에 장시간 노출), 폭력 등의 큰 스트레스를 자주 겪으면, 전전두엽이 변연계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두뇌의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 자기 조절력과 공감 능력 등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 심리적 성숙이 미숙해지고 성인기에 정신적 문제의 증가, 사회적 능력의 부족, 낮은 좌절 인내력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바로 우리 사회의 난제인 높은 자살율, 고립 청년, 청소년들의 자해율 증가, 스토킹과 같은 대인관계 폭력, 각종 중독 현상 등이 갑자기 성인기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두뇌 발달에서 그 씨앗이 형성되어 서서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문제는 어린 시절 좋은 양육과 행복한 경험을 통해 두뇌 발달을 건강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 만이 유일한 예방책이지, 성인기에 치료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몹시 비효율적인 방안이다. 선진국일수록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빈곤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현명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

비인지 역량(non-cognitive competence)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James Heckman 시카고 대학교수가 교육계에서 중요시하는 인지적 교육과 차별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지혜,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자기 조절력, 끈기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능력이 대학교육 등 인지적 교육보다 성인기의 직업적 성공, 행복한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키고 빈민가의 Perry School Project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으며, 어린 시절 좋은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면 성인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되므로, 어린 시절 양질의 양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성인기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도 빈곤층 아동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 규모가 몹시 작고, 주로 부모 대신 돌봐주는 시설 지원 위주이다. 초저출산 시대에 한 아이도 소중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성장과 두뇌 건강까지 함양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3) 아동들에게 비인지 역량 강화, 자기 주도적 삶의 행복감을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확대의 필요성

필자는 2017부터 2년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복합피해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예술심리치료, 예술교육을 통해 정신적 상처에서 회복하고 인지능력 향상,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 대학 진학,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였다.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상자들이 선생님, 동료들과 예술교육에 함께 몰입하여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모습에서 일반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엘시스테마 프로그램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바쁜 부모들과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하면서 심리적 안정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늘봄학교와 같은 돌봄 지원 제도를 제공할 때 아동 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술치료사와 강사들에게 전문적 교육도 제공하고 그 효과성까지 검증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돌봄교육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 인적자원 함양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James Heckman 교수가 강조한 '어린 시절 비인지역량 강화'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 제도를 성공적으로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3. 향후 아동돌봄 제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방안

1. 디지털, AI 기술이 급격히 우리 삶을 바꾸는 상황에서 아동 돌봄 제도에서부터 건강한 두뇌 발달, 정서·사회성 발달을 통해 직업 능력과 행복한 삶의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확장 되어야 함
2.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 교육, 예술, 심리, 의학,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확대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이 필요함
3. 심리 건강에 적신호를 보이는 아동들도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편견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한 아이도 소중하게 기르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임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선진적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주제발제2

이두희 대표
베테랑소사이어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제 노인이 노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6070 세대 뿐만아니라 80+세대도 더 이상 관습적인 노인의 스테레오타입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지적 문화예술교육만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 시니어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은 최근 5-6년 동안 급격히 변하고 있다. 발표자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조사분석한 결과가 이를 설명한다. 이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외국으로 자유여행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효도관광은 역사이며 홀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 악기연주를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고,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뒷방의 늙은이가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외모가 멋진 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 혈연·학연·지연의 강한 인간관계에서 동호회와 같은 느슨한 인간관계의 친구를 찾는다. 가족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대신 반려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들은 '노인'이라는 말 대신 '액티브 시니어', '욜드', '뉴그레이', '신중년', '신노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GG(Grand Gener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표자는 이들을 "신청년"으로 명명하였다.

이 신청년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며, 체력도 젊은이 못지않다. 경험지식은 인생의 절정에 달해 있다. 이들이 부족한 것은 기회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펼칠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발달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평생 발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신청년들을 역발달하는 인간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보호해야만 하는 비매력적인 인간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들을 평생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의 평생 생각과 경험이 문화예술과 만날 때 계속 발달하고 더욱 매력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는 젊은이들 보다 신청년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영역에서 보면 신청년들도 생산자로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니즈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화의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동시에 이 신청년들 중 선도적인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세분화되는 수요자와 다양화되는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년들의 행복도를 높일 때가 되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시니어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매칭시키고 국가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정부와 민간기업과 신청년 당사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교육:
메데진시 교육 시스템 사례

주제발제3

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총장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콜롬비아 메데진은 2018년 유네스코 학습 도시로 선언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콜롬비아 제4차 산업혁명 센터(C4IR:CO)의 본거지입니다. 오늘날 메데진은 콜롬비아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과학기술혁신 지구이기도 합니다.

현 메데진 시장인 페데리코 구티에레스(Federico Gutiérrez)는 교육이 지식과 과학의 사회적 수용을 가능케 하고,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지탱하는 사회 변혁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혁신적인 문화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메데진에서는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를 위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행동을 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콜롬비아의 도시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 관계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더욱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이뤄내고자,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협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퀸터플 헬릭스(la quíntuple hélice. 교육 시스템, 국가, 시민 사회, 경제 부문, 국제 협력)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관점을 통해 앞으로 지역 교육의 미래를 형성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메데진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를 '지식 사회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학술·연구 전략을 세우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기술(skill)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사회를 확립하는 데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과정을 통해 훈련된 인재를 활용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데진시 교육 생태계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평생에 걸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박물관, 과학관, 문화센터, 연구센터와 같은 다양한 공간이 학습 과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메데진의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시장은 시민 개개인이 도시,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배우고, 그러한 작업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시장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통 모델을 만들고, 과학 관련 직업을 늘리기 위해 모든 고등 교육 수준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연구원들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해결책을 찾고 초중등교육 과정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 시스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통합하는 과정은 지식 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등을 달성하도록 하는 단단한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의 사회적 수용 전략과 함께, 대학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식 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메데진의 교육 변혁 과정에서 보다 글로벌화된 세계의 새로운 현실과 지역의 경제적 소명이 잘 연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역량(The capacities of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and learning to be..., Delors, J. 1996)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지리적, 환경적 문제,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제 관계자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전략과 접근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메데진 시 교육 시스템의 주체들은 비판적 사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팀워크, 서비스 지향 및 협상과 같은 감정과 기술(skill)을 기반으로 한 교양 교육(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맥락에서 제기된 여러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다시 학습하기 위해 이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더욱 더 견고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테스트, 데이터, 지표, 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동기부여, 열정, 윤리, 가치, 행복, 헌신, 책임감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Colombia Aprende)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맥락에서 교육 관리(education management)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세계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에서 보다 국제적인 사고와 전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국경을 초월한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물,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자연 재해 또는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교육 관계자들 간의 과학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Gual Soler, 2021).

메데진의 모든 교육적 이니셔티브는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교육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술 및 연구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와 경제적 소명에 부합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지식의 촉진, 수용, 전파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데진은 앞으로도 교육, 지식, 과학기술 혁신 관리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를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Educación para la construcción de un futuro sostenible y equitativo: el caso del sistema educativo de Medellín

Alejandro Villa Gómez
Rector del Instituto Tecnológico Metropolitano (Medellín-Colombia)

Medellín, fue declarada por la Unesco como Ciudad del aprendizaje en el 2018, así mismo, es la sede del Centro para la Cuarta Revolución Industrial Colombia (C4IR:CO) vinculado al Foro Económico Mundial, y hoy en día es Distrito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El actual alcalde de Medellín, el señor Federico Gutiérrez, ha reconocido el papel de la educación en la transformación de una sociedad que sustenta su desarrollo y futuro en el conocimiento y en la generación de procesos de apropiación social de la ciencia, en la relación y el impacto que tienen las nuevas tecnologías en la mejoría de la vida de los ciudadanos, y en la manera como la cultura de la innovación desarrolla hábitos y actitudes que generan acciones orientadas al mejoramiento y a la apropiación de saberes que transforman el entorno y lo revisten de nuevos valores.

La educación es el camino para lograr la equidad territorial, y ese es el reto que todos los actores del sistema educativo, estatal y social tenemos con nuestra ciudad, con la región y con el mundo.

Ante este nuevo escenario donde la educación y la cultura se presentan como el camino para alcanzar el desarrollo de una sociedad más equitativa y sostenible, es necesario construir un acuerdo social desde la educación para la región, y precisamente este será el objeto de la presente intervención.

Este acuerdo social se traza desde una perspectiva colaborativa en donde se hace un llamado a la participación activa de todos los actores de la quíntuple hélice (sistema educativo, estado, sociedad civil, sector económico y cooperación internacional) – la ruta que modelará los futuros de la educación en la región.

En la construcción del acuerdo social que Medellín busca establecer la prioridad es fundamentar el desarrollo de las sociedades en la consolidación de una sociedad del conocimiento, diseñando estrategias académicas e investigativas que permita tener un sistema educativo acordé a las necesidades de los territorios, donde los estudiantes cuenten con igualdad de condiciones para educarse y desarrollar sus diferentes tipos habilidades, tales como las verdes y digitales, y donde la empresa participe de la consolidación de la sociedad del conocimiento, involucrándose en los procesos formativos e investigativos y generando oportunidades de empleabilidad en la que se aproveche el talento formado.

Todos los actores del ecosistema educativo del distrito de Medellín comprendemos que el aprendizaje debe ser a lo largo de la vida, como un proceso permanente y en diferentes espacios vitales (museos, centros de ciencia, centros culturales y centros de investigación).

Nuestro actual Alcalde, el señor Federico Gutiérrez, ha insistido en la importancia de generar procesos educativos que garanticen el desarrollo de destrezas y habilidades, actitudes y valores que permitan interpretar la relación con la ciudad, las comunidades y el mundo en general, crear un modelo común de apropiación social de la ciencia, la tecnológica y la innovación que permita fortalecer e integrar todos los niveles formativos de la educación superior con los niveles precedentes con el fin de fortalecer las vocaciones científicas, articular y hacer partícipes a los jóvenes investigadores de las soluciones que se requieran para el desarrollo de los territorios y los procesos formativos de la educación primaria y secundaria. En este punto quiero detenerme, ya que este mecanismo de participación e integración de los actores de los distintos sistemas de educación, será uno de los pilares que permitirá alcanzar la equidad territorial basada en una a sociedad del conocimiento.

Ante las estrategias de apropiación social de la ciencia, la tecnología y la innovación sumado a la participación de las universidades y las empresas en la consolidación de un sistema educativo basado en la sociedad del conocimiento, es necesario que los procesos de transformación educativa estén acordes a las nuevas realidades de un mundo globalizado a la vocación económica de los territorios.

Las capacidades del aprender a conocer, el aprender a hacer, el aprender a vivir juntos y el aprender a ser (Delors, J. 1996.), deben ir de la mano de enfoques y estrategias formativas que se construyan desde las realidades y sus problemáticas, desde las ventajas y desventajas geográficas y del medio ambiente, desde las posibilidades que ofrece el sistema económico y desde el diálogo que se genera con otros actores internacionales.

Así mismo, todos los actores del sistema educativo del distrito de Medellín también reconocen la importancia de una formación humanística basada en la educación de las emociones y en habilidades como: el pensamiento crítico, la toma de decisiones, resolución de problemas complejos, el trabajo en equipo, la orientación al servicio y la negociación. En medio de los retos que proponen los contextos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también "se requiere de una educación más resiliente, capaz de aprender a aprender o de desaprender para volver a aprender; que no solamente esté centrada en lo objetivo (las pruebas, el dato, el indicador, la evaluación, etc.), sino especialmente en lo subjetivo (la

Alejandro Villa Gómez
Rector del Instituto Tecnológico Metropolitano (Medellín-Colombia)

motivación, la pasión, la ética, los valores, la felicidad, el compromiso y la responsabilidad, entre otras)". (Cf. Colombia Aprende).

Esta manera de concebir la gestión de la educación en los nuevos contextos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busca garantizar la calidad de procesos formativos e investigativos que propicien una cultura de la internacionalización y unas competencias y habilidades necesarias para actuar en el mundo local, con pensamiento y proyección internacional. Igualmente, busca que la investigación básica y aplicada sea el motor del desarrollo de la región.

La ciencia, la tecnología y la innovación son herramientas clave para enfrentar desafíos globales, que no respetan fronteras, como el cambio climático, el desarrollo sostenible, la seguridad hídrica, energética y alimentaria, los desastres naturales o las enfermedades infecciosas. Es por eso, que es necesario que la cooperación científica entre actores local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tenga un papel cada vez más destacado en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os territorios. (Gual Soler, 2021).

Todas las apuestas actuales educativas en Medellín cimentan la gestión de la educación en sociedades basadas en el conocimiento y donde los procesos académicos e investigativos van de la mano de las necesidades del territorio y de la vocación económica de la región, donde el fomento, la apropiación y la transferencia del conocimiento busca aportar al desarrollo de los territorios.

Medellín seguirá creyendo que la educación, el conocimiento y la gestión de la ciencia, la tecnología y la innovación marcan el desarrollo de las sociedades y hacen del mundo un lugar más sostenible y equitativo.

[참고문헌]

Colombia Aprende. (2022). La cuarta revolución industrial y la educación. Tomado: https://www.colombiaaprende.edu.co/agenda/tips-y-orientaciones/la-cuarta-revolucion-industrial-y-la-educacion

Delors, J. (1996.): "Los cuatro pilares de la educación" en La educación encierra un tesoro.

Informe a la UNESCO de la Comisión internacional sobre la educación para el siglo XXI. Madrid, España: Santillana/UNESCO. pp. 91-103.

Gual Soler, M. (2020). Diplomacia científic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strategias, mecanismos y perspectivas para fortalecer la diplomacia de la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UNESCO; cilac 2020.

http://forocilac.org/wp-content/uploads/2020/11/PolicyPapers-DiplomaciaCientifica-ES.pdf

미래세대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사회이슈 연계 융합 프로젝트 교육

지정토론 1

박지원 대표
프로젝트플래닛

미래세대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사회이슈 연계 융합 프로젝트 교육

Ghat GPT가 세상에 등장한 후 지난 1년 반 동안 AI 기술의 발전속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래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세대는 그런 내일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준비되고 있을까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정해진 질문에 대해 빠르게 정답을 내는 지식 암기형의 교육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여년간 미래세대를 만나면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은 THINK. ACT. CONNECT.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직접 실행하고 경험하며, 진짜 세상 Real World와 연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플래닛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세대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①(생각하는 힘) 리터러시 능력 ②(실행하는 힘) 프로젝트 근력 그리고 ③(연결하는 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위 세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프로젝트플래닛은 UN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제를 담은 문화예술 창의융합 프로젝트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PLANET을 위해 오늘 실행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Climate Action School

프로젝트플래닛은 2022년 UN 협력 교육기관인 Take Action Global(TAG)과 협약을 맺고 기후행동학교 공식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환경 프로젝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Collective Voices and Actions. 작은 목소리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아이들은 현재 기후변화의 문제를 리서치하고 연구한 후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설계하여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구의 날에 글로벌 친구들에게 한국의 청소년들이 진행한 Climate Action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Goals project

TAG와 함께한 또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는 Goals Project입니다. 전세계의 학교들이 하나의 SDGs 목표를 선택하여 함께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플래닛은 16번 평화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당시 전쟁이 막 터져 고통받고 있던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 영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현시대의 시선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 또한 작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연습, 미래세대 친구들에게 너무 필요한 교육입니다.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혐오와 차별을 넘어 존중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용감한 무브먼트, 바로 원더러스 프로젝트입니다.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가 꼭 가져야 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풀무원의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원더라는 영화를 함께 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별과 혐오의 사례를 문제삼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디자인씽킹 과정을 통해 찾아봅니다.

프로젝트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협력하여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어리지만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서도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eet Your Beauty 프로젝트

Meet Your Beauty 프로젝트는 미디어 속 숨어있는 왜곡된 미의식과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똑 같은 별은 없어. 하지만 똑같이 빛나"라는 슬로건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둔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때 온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게 됩니다.

미래세대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사회이슈 연계 융합 프로젝트 교육

박지원 대표
프로젝트플래닛

AI and Ethics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디지털 교실, 온라인 수업 등이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고, 이제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Chat GPT를 모르는 학생이 없고,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빠르게 이러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 부분을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기술 사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입니다. 최근 프로젝트플래닛 멤버들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매거진 프로젝트를 하며 아이들과 AI의 현 기술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 아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AI 헤드밴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멍 때리고 다양한 상상을 하며 창의력을 키우는데, AI 밴드는 끊임없이 한가지에 집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막고 오히려 뇌가 성장할 수 없게 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 교육을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보면 대부분은 인풋은 넘치게 많은데 생각할 시간과 생각을 정리할 시간,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인재상은 책임의식, 소통과 협력, 창의성이 있으며, 사회공헌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계산을 빨리하거나,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인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시대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할 줄 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말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미래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THINK. ACT. CONNECT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MZ들이 만드는 동네
청년 돌봄공동체 필요성

이학준 대표
청년채움

1. 확장되는 세계, 사라지는 동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을 접하고 세상을 보는 눈 역시 넓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었습니다. 우리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2030 청년 85.7%가 SNS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소통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1)]

그러나 청년들의 고립, 청년 고독사와 청년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 중 2030 세대가 34.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경쟁사회, SNS로 인한 자존감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지만 저는 서울로 모든것이 집중된 한국 사회와 청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청년 43.5%가 지방출신입니다.[2)] 지방에 비해 서울에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서울의 집값은 청년들을 정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 청년 중 70.9%는 주거지속기간이 2년 미만이며 86%의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3)]

상경한 청년들은 연고가 없어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는 그럴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네 사랑방, 구멍가게 앞의 평상 등 사람들이 모이는 허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청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공간이 서울에서 찾아보기 어렵기만 합니다. 청년공간들은 청년들이 퇴근할 무렵 문을 닫고 카페나 술집, 음식점을 가려고 해도 전부 돈이 듭니다. 청년들은 동네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웃들이 정겹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드라마 속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청년세대들은 유튜브에서 '응답하라 1988'을 돌려보며 동경하기도 하는 등 가장 개인적인 세대이지만 외로움과 고립에 취약하고 힘들어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노사회'가 되었습니다. 분자 단위로 쪼개져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아이러니한 사회에서 특히 서울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1) 김나연(2023) SNS 이용시간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KISDI STAT Report Vol. 1-7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3) 국토해양부(2012 주거실태조사)

2. 동네에도 청년들이 살아요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코로나19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겪고 고립과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던 차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비영리 청년단체 '청년채움'이었습니다.

청년채움은 2020년 구로에서 시작해 구로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구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단체를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 정책 개발과 동네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요소들을 영상과 글로 담아내며 동네와 청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간관계망이 붕괴되자 소셜살롱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신분, 이름, 직업 등을 알리지 않고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와 취향, 취미를 나누는 소셜살롱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청년채움'도 구로구 소셜살롱이라는 이름의 <구롱살롱>을 2021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롱살롱>은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관계망을 조금이나마 지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진행하던 <구롱살롱>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펜데믹 이후 무너진 청년들의 정신건강 힐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틈만나면>으로 리뉴얼하게 됩니다.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흥행하는 소셜살롱 프로그램들을 분석했는데 몇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촌과 홍대 등 번화가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두 번째, 한가지 취미 또는 취향만을 반복해서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세 번째, 월 5만원으로 가격 부담이 크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틈만나면>은 이와 다르게 동네에서의 적응을 돕는 동네 중심의 콘텐츠(동네 책방, 공방 투어/동네 지도 만들기 등)와 만다라 색칠하기,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다양한 취향과 취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MZ들이 만드는 동네
청년 돌봄공동체 필요성

이학준 대표
청년채움

3. <틈만나면>으로 동네에서 찾은 가능성

2023년부터 시작한 <틈만나면> 시즌1은 구로구 오류동, 성북구 동선동, 노원구 상계동에서 진행하였고 각 모임별로 10명의 모임원들과 2명의 진행자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 94.5%가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83.3%가 모임 이후 동네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94.5%가 고립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번아웃 수치 역시 모임 전후로 1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구롱살롱>과 <틈만나면>은 동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보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했고 동네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 자연스럽게 정책을 만들어 구의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틈만나면>으로 만난 동네의 또래 청년들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 놀러가서 홈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함께 등산을 가거나 춤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나 홀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동네의 작은 책방과 역사적 공간, 문화시설들을 이용하며 동네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경험을 서울로 이사와서 처음했다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네 이웃을 만들 수 있는 <틈만나면>이 서울의 모든 동네에 생겨나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청년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

지난 포럼 소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2.27.~ 2.28.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발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新비전·전략(2023-2027) 수립을 계기로, 미래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했습니다.

1일차에는 정치,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거시적 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일차	**급변하는 미래,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다**
개회사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환영사	**박보균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축사I	**반기문 이사장**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축사 II	**김승수 위원, 황보승희 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2023-2027)	**박현성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발제 1] 거시적 관점의 미래사회 전망 :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도서관장
[발제 2] AI와 ChatGPT,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	**서민준 교수** KAIST 김재철AI대학원
[발제 2]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모종린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2.27.~ 2.28.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종합토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사회 변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술 발전·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의미 확장

문화예술을 통한 인간의 자유와 연대 의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방향 모색

좌장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장

토론자
김주원 발레리나
모종린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서민준 조교수 KAIST 김재철AI대학원
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도서관장
정갑영 예술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태용 교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일차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디지털 대전환기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시도"를 모색했습니다.

2 일차 — **급변하는 미래,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다**

축사 — **황순우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미래전략 방향 —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그리다**

[발제]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할력
이영범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종합토론]
국민의 삶 속으로 촘촘히,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역의 재구성, 시민과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의 중요성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좌장
김세훈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토론자
강승진 센터장 춘천문화재단
김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자현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성훈 실장 SK사회적가치연구원
박순태 본부장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영범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2.27.~ 2.28.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부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예술 경험 방법을 탐색하다

[발제]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상균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종합토론] 디지털 사회 변화와 함께 등장한 문화예술교육 이슈, 현장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좌장 조은아 교수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디지털 전환 방향과 정책 과제	토론자 김상균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혜인 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디지털 네이티브의 존재양식과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박유신 교사 서울석관초등학교,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장 박지택 팀장 한화시스템 Biz솔루션팀 신보슬 책임큐레이터 토탈미술관

AI 인공지능과 새로운 창의성, 미래사회 우리 삶과 문화예술교육

제2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5.19.
페럼타워 페럼홀

「제2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우리 삶 속 깊숙이 파고든 AI가 인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미래사회 새로운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했습니다.

개회사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환영사	전병극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축사 I	반기문 이사장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축사 II	홍익표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조발제] 'AI를 마주하는 인문적 태도'	최진석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철학과, (사)새말새몸짓 이사장
[발제 1] 생성형 AI 기술발달이 콘텐츠 창작과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	배순민 소장 KT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발제 2] 생성형 AI 시대, 새로운 역량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발제 3] 생성형 AI와 방향 상실 창작자들	민세희 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

AI 인공지능과 새로운 창의성, 미래사회 우리 삶과 문화예술교육

제2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5.19.
페럼타워 페럼홀

[종합토론]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감각, 문화예술, 교육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대응 전략

디지털 시대 융합과 새로운 창의성, 융합적·창의적 인재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

AI 시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래퍼런스를 만들어 낼 것인가

좌장

김보름 교수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토론자

민세희 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
박성필 원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배순민 소장 KT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여운승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이중식 원장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미래교육연구소장
최상현 교사 김포 향산초등학교, 인공지능윤리 정책포럼 위원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전환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11. 1.~ 11. 2.
성수동 S팩토리 D동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문화예술 향유자 관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정책 패러다임을 면밀히 바라보고, 진정한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방식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1일차에는 문화예술 향유자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 건강한 삶 등 개인의 삶을 비롯한 사회 변화와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1 일차	문화예술향유자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전환
개회사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환영사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축사I	이배용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축사 II	김유열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기조발제1] 문화예술교육의 미래가치와 방향: 행복과 건강한 삶의 선순환	조벽 석좌교수 고려대학교,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
[기조발제2]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마인드마이너
[주제발제1] 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조현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제발제2] 문화예술교육의 다층적 성과 진단, 사회변화 조응하는 정책 확대 전략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전환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3. 11. 1.~ 11. 2.
성수동 S팩토리 D동

[종합토론]
문화예술의 능동적·창의적 향유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좌장
김형숙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담자
조벽 석좌교수 고려대학교,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
송길영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마인드마이너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조현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일차에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주제로 디지털 융복합, 국내외 사회변화, 공간 등 다층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2 일차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개회사	**박은실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축사	**정송 원장** KAIST 김재철AI대학원, AI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문단장
[기조발제1]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방향과 문화예술교육	**김형숙 교수**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기조발제2] 디지털 기술 융복합 미디어아트와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주제발제1] 국내·외 사회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역할	**김보름 교수**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문학문화콘텐츠학과
[주제발제2] 공간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예술교육콘텐츠	**심상용 관장** 서울대학교 미술관
[토론] **전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키워드** : 콘텐츠 아카이빙/서비스, 플랫폼, 공간, 인력, 디지털, 지역 생태계	좌장 **심상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토론자 **김형숙 교수**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김보름 교수**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문학문화콘텐츠학과 **심상용 관장** 서울대학교 미술관 **라도삼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장혜성 차장** 한화문화재단 **김자현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HAT'S
NEXT FOR ARTS &
CULTURE EDUCATION

4th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발행인	박은실
발행일	2024년 5월 23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YTN 뉴스퀘어) 11~12층
문의	T.02)6209-5900 F.02)6209-1392
홈페이지	www.arte.or.kr
웹진	www.arte365.kr
이메일	strategy@arte.or.kr
기획	미래사업본부 김자현 본부장
	전략사업팀 김주리 팀장
	장효선 대리
	이현민 주임
등록번호	KACES-2421-C001